

### 전남대병원, 고위험 산모 치료 기관 선정

전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2016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기관(책임자 김윤하 산부인과 교수·사진)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치료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고위험 임산부의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산모 및 태아·신생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2016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기관'에 전남대병원이 선정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정 2016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기관(책임자 김윤하 산부인과 교수·사진)에 선정됐다.

4개 시·도, 4개 권역에 총 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이번 지원 사업에는 전남대병원을 비롯하여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각각 선정됐다.

전남대병원은 우선 통합치료센터 조직을 구성하고 국비 10억원을 들여 산모·태아 집중치료실(5병상)과 신생아소생실과 수술실 등을 증설하고, 각종 의료장비를 구축하여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고위험·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선정사업 책임자인 전남대병원 김윤하 산부인과 교수는 "의료 인프라 보강으로 중증 고위험 임신부, 태아 및 신생아에게 확실한 집중치료가 가능해져 산모 및 신생아 사망률 감소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빠르고 정확한 진료 체계를 통해 환자가 치료기회를 놓치지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농협 '산지유통 비전 평가' 최우수 조직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지난 9일 농협중앙회 본부 대강당에서 '산지유통 비전 2033' 평가 농산물 연합판매사업 확대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조직에 선정됐다.

'산지유통 비전 2033'은 전국 농협이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공선출하회 3000개 조직 육성, 연합마케팅 물량 3조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농업 경제사업 혁신운동이다.

전남농협은 전년도 연합마케팅 물량 2500억원을 달성한 이후 2016년 3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2020년까지 산지유통 300개 조직을 육성, 원예농산물 취급비율을 50%까지(현재 40%) 올릴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청년 강사 수료식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배승수)는 지난 10일 '2016 청년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 “뒤늦게나마 인정받아 기뻐... 침·뜸 효능 전세계 알릴 것”

## “침·뜸 교육 합법” 판결 이끌어 낸 무극보양뜸 창안 구당 김남수용

고향 장성에서 침·뜸 보급활동을 하고 있는 구당(久堂) 김남수(101) 용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대법원이 “오프라인에서도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김 용은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이 기쁘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의 삶은 ‘법적인 수난사’로 압축된다.

현재는 사라진 ‘침사(침을 놓는 사람) 자격만 갖고 뜬 시술을 해 ‘무허가 의료행위’ 제재와 소송전을 겪은 김 용은 2011년 그의 시술이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으며 논란에서 벗어났다.

이후 2012년 일반인에게 직접 침·뜸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었으나 설치신고가 반려됐다. 침·뜸 같은 의료행위는 무자격 강사로 구성된 사설 시설이 아닌 정규대학이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김 용은 불법 소송을 했지만 1심과 2심은 당국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

### ‘침사’ 자격으로 뜬 시술

### 무허가 의료행위 소송 겪어

### 전국 6곳에 평생교육원 두고

### 고향 장성서 보급활동 전념

만, 대법원이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하급심과 정반대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용은 “평생 침·뜸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살아왔는데 뒤늦게나마 인정을 받게 돼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며 “의료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교육한 것뿐인데 뒤늦게나마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속한 줌으로 뜬 ‘무극보양뜸’을 창안한 김 용은 고령의 나이에도 “사람을 위해서는 침·뜸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제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찾아와 침·뜸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우렁찬 목소리로 포부를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는 무극보양뜸 박사과정이 있고 중국에서도 받아들여 활발하게 교육을 하고 있다”며 “침과 뜬의 효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용은 이어 “침구 의학은 과거에는 몸에 자극을 줘서 조절하는 요법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매우 과학적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몸의 혈관은 12만km로 일종의 전기줄인데 침은 혈관의 전기를 통하게 하고 뜬은 피를 만들어 준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은 서울·광주·제주·대전·대구·부산 등 6곳에 있다. 매년 600여명이 이곳에서 침·뜸을 배우고 있다.

한편 1915년 광주 광산군(현 장성군)에서 태어난 김 용은 부친 김서중으로부터 한학과 침구학을 전수, 100세의 고령에도 침·뜸 보급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고향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에 무극보양뜸센터를 열고 매주 토·일요일 무료 진료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연합뉴스

### “현장에서 익힌 노하우 후배들에 전수 힘쓸것”

### 정인재 새천년종합건설 회장, 전남대서 26일 명예 공학박사학위

“배움이 부족한 저에게 크나 큰 영예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오는 26일 전남대학교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명예 공학박사 학위를 받는 정인재(69) 새천년종합건설(주) 회장은 “학위를 인생의 명예로 삼겠다”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정 회장은 건설현장의 엔지니어에서 전문 경영인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정인정 신과 경영능력을 인정 받아 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 출신인 정 회장은 지난 2001년 새천년종합건설 회장으로 취임하기까지 건설사 엔지니어·임원, 부사장 등을 지내는 등 50년 이상을 정통 토목 건설인으로서 삶을 살아왔다.

정 회장은 “학위를 받음으로써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춘 만큼 현장에서 익힌 노하우를 후



배와 후학에게 전수하는데도 힘쓸것”고 말했다.

전남대 공과대학 동창회장, 총동창회 수석 상임부회장,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기 원우회장을 역임한 정 회장은 지난 2012년 전남대 개교 60주년을 맞아 전남대 공대 장학재단을 결성하고 장학금 20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한편, 새천년종합건설은 26일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동구 자산동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 회장의 학위 취득을 기념하는 축하연을 열 계획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해남군청 김종관씨 무궁화 품평회 최우수상

해남군청 김종관 씨가 9일 열린 전국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산림청이 주관, 전국 각지에서 총 1300여 개 작품이 접수된 이번 품평회에서 김씨는 ‘한반도에 핀 무궁화’ 작품을 선보였다.

김씨의 작품은 꽃송이가 크고, 수형이 곧고 아름다운 것은 물론 화분과 꽃을 이용해 한반도 모양을 형상화함으로써 나라꽃 무궁화의

특징을 잘 살려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김씨는 2009년 해남군 산림복지과에 근무하면서 무궁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배워 무궁화 연구와 재배를 시작, 각종 품평회에서 수상하는 등 무궁화 재배의 달인으로 통한다.

김씨는 이번 작품으로 지난 8월 1일 육천면 무궁화꽃 축제에서 열린 전라남도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품평회 시상식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예정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 인사

- ◆전남도
  - ◇5급 승진 ▲정창영 에너지산업과 ▲나은주 의회사무처 ▲이기호 농업기술원 ▲김동관 ▲장선환 ▲박용철 ▲노일상 동부지역본부 ▲신동신 ▲김원중 해양수산과학원 ▲이영진 ▲서대철 ▲김정선 국민안전처 과장 ▲이병철 행정자치부 ▲최석남 국민대통합위원회 ▲김평권 순천의료원 ▲김희상 강진의료원 ▲나소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동진 함평군 전출 ▲김기평 진도군 ▲박상미 도민소통실 ▲권용선

- 일자리정책지원관실 ▲배용석 투자유치담당관실 ▲염승열 ▲권광일 문화예술과 ▲장영철 문화산업디자인과 ▲송하석 스포츠산업과 ▲문미란 산림산업과 ▲이상철 총무과 ▲박근식 회계과 ▲정혜정 의회사무처 ▲김남균 농업기술원 ▲최용재 공무원교육원 ▲강인중 도로관리사업소
  - ◇5급 전보 ▲홍은경 대면인실 ▲곽은희 ▲이은희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실 ▲박종환 F1대회지원담당관실 ▲정창모 일지리정책지원관실 ▲김규용 투자유치담당관실 ▲신상식 ▲배근호 기업도시담당관실 ▲오수미

- 정책기획관실 ▲오종우 예산담당관실 ▲이상용 청년정책담당관실 ▲권순조 안전정책과 ▲박용일 사회재난과 ▲임오중 자연재난과 ▲고영랑 지역경제과 ▲소상원 창조산업과 ▲이호범 관광과 ▲박용학 문화예술과 ▲김봉근 ▲김희철 문화산업디자인과 ▲김미순 사회복지과 ▲이형만 노인장애인과 ▲박흥근 건강증진과 ▲김석면 농업정책과 ▲이덕준 ▲신성열 친환경농업과 ▲조한기 해양항만과 ▲신운용 해양항만과 ▲이영조 수산자원과 ▲곽영호 수산유통가공과 ▲김운형 지역계획과 ▲정운수 도로교통과 ▲이상훈 ▲고미경 총

- 무과 ▲조대정 회계과 ▲김종철 세정과 ▲김정섭 의회사무처 ▲김승희 ▲정원기 ▲이봉환 농업기술원 ▲임경옥 ▲나영수 공무원교육원 ▲심우정 ▲정동환 ▲김형국 해양수산과학원 ▲박세철 도입도서관 ▲이형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 ▲김동현 국민권익위원회 ▲유호규 자연재난과 ▲이길용 농식품유통과 ▲장송기 해양수산과학원 ▲강학 목포시 전출 ▲조이환 화순군 ▲박영채 영광군
  - ◆전북도
    - ▲최병관 기획관리실장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 종친회

▲전주에서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발우) 청년회(회장 이철환) 이화월례회=16일(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광산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중독문제(알코올·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당사자나 가족 대상 무료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비공개 무료상담 제공(www.gsgacc.or.kr) 문의 062-714-1233.

###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부음

▲하성호씨 별세 동훈·민훈·설아씨 부친상 김상호씨 방부상=발인 12일(금) 조 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이명순씨 별세 정성학(새천년신문 사회부팀장)씨 모친상=발인 13일(토) 전

주시 은고을 장례식장 401호 063-211-5000.

▲김정례씨 별세 최규정(규호계전 대표)·규연(신우금속창호 대표)·규상(우리은행 광명지점 지점장)·규권(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장)·선희(전농중등학교 교사)씨 모친상=발인 13일(토)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02-923-4442.

|   |   |
|---|---|
| <b>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b>   |   |
| <p><b>201호 故황갑순 님(남/82세)</b></p> <p>子/子婦: 화병호/조미애, 딸민/김미숙, 딸진/양정화<br/>女/婿: 한승희/박종옥, 서희/박기주<br/>未成人: 박금순<br/>● 발 인: 8월 13일<br/>●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1</p> | <p><b>301호 故이남예 님(여/96세)</b></p> <p>子/子婦: 김화자, 장영권/김복희, 딸남/이인순, 선영/정미경<br/>女/婿: 전만자, 집희/최봉운<br/>● 발 인: 8월 13일<br/>● 장 지: 담양부활의집 ● 연락처: 227-4382</p> |
| <p><b>401호 故황승현 님(남/89세)</b></p> <p>子/子婦: 황주/정숙경, 영재/김미선<br/>女/婿: 황관숙/박근옥, 민숙/김동철<br/>未成人: 최금옥<br/>● 발 인: 8월 13일<br/>●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3</p>          | <p><b>101호 故김달말 님(여/95세)</b></p> <p>子/子婦: 이명수/김양자<br/>女/婿: 이명숙/이효신<br/>未成人: 이명준, 응경, 혜정, 준호<br/>● 발 인: 8월 13일<br/>● 장 지: 구례읍선영 ● 연락처: 227-4000</p>  |
| <p><b>102호 故전명기 님(남/65세)</b></p> <p>子/子婦: 오동석/최경미 女: 오영희 夫: 한동근<br/>● 발 인: 8월 13일 ● 장 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5</p>   |   |
| <p>孝 金호 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p>   |   |

|   |   |                     |
|---|---|---------------------|
| <b>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b>                         |   | 8월 12일(음 7월 10일 丙寅) |
| <b>子</b>                                      | 48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원만했던 상대와 갈등이 생길 수다. 60년생 결정적인 순간이니 주목하고 있어야겠다. 72년생 상대의 저의를 정확히 파악하자. 84년생 돌고 도는 세상의 아치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7, 47          | <b>午</b>            |
| <b>丑</b>                                      | 49년생 가장 기본적인 면에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하느니라. 61년생 굳은 마음가짐이라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73년생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85년생 사실부터 파악해 두고 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행운의 숫자 : 30, 87       | <b>未</b>            |
| <b>寅</b>                                      | 50년생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62년생 아니 되는 것을 강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74년생 수시로 변화무쌍한 형세라고 할 수 있으니 드러나는 현상에 주목하라. 86년생 상당히 생기겠지만 거의 없게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70, 72 | <b>申</b>            |
| <b>卯</b>                                      | 51년생 서로 맞대서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63년생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체념하는 것이 낫다. 75년생 다음 코스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87년생 편시에 가져왔던 의문이 풀리리라. 행운의 숫자 : 82, 02       | <b>酉</b>            |
| <b>辰</b>                                      | 40년생 뜻이 곧다면 이루고야 말리라. 52년생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64년생 구태의연한 과정은 해소하는 것이 낫다. 76년생 짧은 시간을 할애해도 대처할 수 있다. 88년생 혼란스러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7, 01  | <b>戌</b>            |
| <b>巳</b>                                      | 41년생 지나라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리라. 53년생 길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색하게 될 것이다. 65년생 반복될 뿐이다. 77년생 만회하기에 좋은 날이다. 89년생 모르고 있는 것이 백번 나을 뻔한 상황이다. 행운의 숫자 : 03, 41      | <b>亥</b>            |
| <p>“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p> |   |                     |